

화순군, 내년 하수도 신규 사업비 확보

복림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등 3건 추진

화순군은 최근 2020년 하수도 신규 사업 3건의 국비 150억 원(총 사업비 212억 원)을 확보했다. 확보한 신규 사업비를 포함해 화순군이 시행하는 하수도 사업비는 하수관로 정비 사업(4건) 597억 원, 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5건) 444억 원, 공공 하·폐수처리시설

개량 사업(2건) 165억 원 등 총 1206억 원이다. 군은 하수처리구역 확대 등을 반영해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하고, 시설물 기술 진단을 적기에 시행해 다른 자치단체와 비교해 경쟁 우위를 선점해 신규 사업 국비를 확보하는 성과를 달성했

다. 또한, 전남도에 국비 신청을 한 후 구공군 군수를 비롯해 주무부서와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환경부, 기획재정부 등을 수시로 방문해 사업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한 국비 활동도 주요했다. 군은 신규 사업 추진에 따라 공공수역 수질 보전과 일자리 창출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화순군 관계자는 “이번 2020년 신규 사업 확정으로 늘어나는 하수도 처리구역 확대 수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공공수역 수질 보전에 따른 청정 화순 이미지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 생활환경 개선과 하수도 행정 선진화를 통해 살기 좋은 화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양시, 기업과 함께 민생현장 챙겨

정현복 시장 등 중마시장 방문 상인들 격려

광양시는 추석 앞두고 최근 지역기업과 함께 중마시장을 방문해 상인들을 격려하며, 애로사항을 듣는 등 민생현장을 챙기는 소통 행보에 나섰다. 이날 정현복 시장과 이광용 광양제철소협력사협회장 등 40여 명은 은누리상품권과 광양사랑상품권으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추석맞이 장보기 행사를 가졌다. 정현복 시장은 상인들과 전통시장을 찾은 손님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었으며 과일, 채소, 견과류 등 상품을 직접 구입하고 상인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지난 7월에 부임한 김명원 부시장은 상인들과 인사를 나누며, 중마시장이 번창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이광용 광양제철소협력사협회장은 “중마시장에서 매년 설과 추석을 앞두고 넉넉하게 제수용품을 구매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의 어려운 소상공인 등을 돕는데 광양시와 늘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현복 시장은 “장사가 안된다면 상인들이 많아 맘이 아프면서도 활기차게 헤쳐나가려는 상인들의 표정 속에 넉넉한 인심과 포근



한 정을 느낄 수 있었다”며 “오늘 민생탐방에 참여한 기업이 상인들에게 힘을 주어 희망을 갖도록 전통시장 애용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전통시장 민생탐방

은 2일 중마상설시장을 시작으로 3일 광영상설시장, 4일 옥곡5일시장, 6일 광양5일시장을 차례로 방문해 전통시장 상인들을 격려할 계획이다. 광양=김승호 기자

곡성 멜론, 전남 마을이야기 박람회서 홍보



곡성군이 지난 8월 30일부터 9월 1일까지 무안 스포츠타코에서 진행된 '2019 전남 마을이야기 박람회'에 참가해 곡성멜론을 홍보했다. 올해 처음으로 개최된 2019 전남 마을이야기 박람회는 '세상을 품다+마을을 잇다'라는 주제로 전라남도가 주최했다.

22개 시군이 대표마을이 마을이야기 자랑대회, 영상물 상영 등을 통해 자신들의 마을을 자랑하고 홍보했다. 곡성군은 농특산물과 함께 '전남 곡성 멜론마을'이라는 이름으로 곡성멜론 시식 및 판매를 진행하며 곡성멜론과 멜론융복합산업에 대해 홍보를 진행했다. 곡성 멜론농촌융복합산업화사업단에서는 이날 계약재배로 생산되고, 비파괴 당도측정기를 사용해 공동선별한 최고 품질의 곡성멜론을 소비자들에게 선보였다. 특히 추석 시즌을 맞아 명절선물과 관련해 진행한 이벤트에 많은 방문객들이 관심을 보였다.

순천시, '웃장 국밥 축제' 8일 개최

순천시는 오는 8일 순천 웃장 국밥 골목과 아채전 광장 일원에서 시민과 관광객이 모두 행복함을 느낄 수 있는 '2019 순천 웃장 국밥 축제'를 개최한다. 웃장 국밥 축제는 2012년에 시작해 8회째로 올해는 20여 개의 웃장 국밥집이 참여하는 매우 뜻깊은 축제이다. 60여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웃장 국밥은 일반 국밥과 달리 '돼지내장'을 사용하지 않고 '삶은 돼지 머리'의 살코기만을 재료로 사용하여 그 국물 맛이 깔끔하고 뒷맛이 개운한 것이 특징이다. 한 그릇에 7,000원 짜리 국밥 2

인분을 주문할 경우 수육 한 접시를 무료로 제공해 줌으로써 그 맛과 푸짐함이 임소문을 타고 음식거리로 지리 잡았다. 이번 행사는 초대 가수 공연을 비롯한 시민 노래자랑, 율놀이 등 체험행사를 병행하여 관광객들을 더욱 즐겁게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올해는 자전거 등 경품과 돼지저금통 1,000개를 준비하여 참석자에게 제공할 계획이며, 선착순 100명에게는 순천사랑상품권 3,000원권도 경품으로 제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 할 것으로 보인다.

나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준공식

나주시는 4일 화물자동차 불법 주차 문제 해소를 위해 청동4번길 일원에 조성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준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준공식에는 강인규 나주시장을 비롯해 백중기 전라남도 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이사장, 신정훈 지역위원장, 강명철 흥양종합건설(주)대표이사, 박재형 ㈜유탑엔지니어링 대표이사 등 각 기관·단체장·주민 등 250여 명이 참석했다. 나주시립국악단의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추진 경과보고, 감사패 수여, 기념·축사, 테이프 커팅, 차고지·시설 관람 순으로 진행됐다. 감사패는 시공·감리

자에게 각각 수여됐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축사에서 “시민 숙원사업이었던 화물차 공영차고지 준공식을 통해 반세 불법주차로 인한 통행 안전사고 등 불편사항이 적극 해소될 것이다”며 “앞으로 선진 교통 문화 정착과 차고지 이용 활성화를 위한 차고지 운영과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총사업비 186억 원이 투입된 나주 화물차 공영차고지는 부지 49,083㎡에 특대형 18면, 대형 198면, 소형 125면 등 주차면 341면과 차량 정비시설, 식당, 농·특산물 판매장, 체력단련실, 샤워장 등 편의시설을 갖췄다.

'보성사랑상품권' 10% 특별 할인

보성군은 4일부터 보성군 관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보성사랑상품권'을 발행해 본격 판매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군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9월 한달간 상품권 10% 특별 할인 판매를 진행하고, 10월부터는 5%할인율로 판매할 계획이다. 이번을 발판으로 보성사랑 상품권은 지역자금의 유출을 막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기획됐다. '보성사랑상품권'은 5천 원·1만 원·5만 원 권 3종류로 발행되며, 현금으로만 구입할 수 있다.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구매할 수 없고, 법인·단체·가맹점주는 할인 혜택이 없다.

상품권 할인 개인 구매한도는 월 50만원(연 600만원)이며, 신분증 지참 후 관내 NH농협은행 및 농·축협에서 구매 가능하다. 지금까지 보성군 관내 500여개 가맹점이 등록된 상태며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주유소, 음식점, 서점, 학원, 약국 등 거의 모든 업종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상품권 구매자들은 '보성사랑상품권' 지정스티커가 부착된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이 가능하고, 구매금액의 80%이상을 사용하면 현금으로 거스름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가맹점은 수수료 부담 없이 현금 권면금액 그대로 농협에서 환전 받으면 된다. 보성=안구일 기자

영광군, 방사능방재 주민보호집중훈련



영광군은 지난 3일 영광스포티움 보조체육관에서 한빛원자력발전소 3호기 화재발생에 따른 비상상황 발생을 기상한 '2019 방사능방재 주민보호집중훈련'을 실시했다. 이번훈련은 군·경·소방·교육청 등 총 10개 기관 300명이 참여하여 비상단계별 상황전파, 옥내대피, 교통통제, 방사능오염경

사, 구호소 운영 등 주민보호조치를 중점적으로 실시했다. 특히, 한빛원전 내 침색비상 발령과 동시에 영광군 재난종합상황실에 대책본부 확대 발족하고 13개 협업부서가 참여하는 토론식 훈련을 실시하였으며, 재난 상황이 악화되어 적색비상이 발령됨에 따라 비상계획구역 내 학생 및 주민을 구호소로 대피하는 훈련을 실시했다. 또한, 구호소로 입소한 주민 및 학생을 대상으로 방사능방재장비 체험, 심폐소생술, 방사선영향성 검사 등 다양한 체험부스도 운영하였다. 영광=서희권 기자

www.jepa.kr

전라남도비정규직노동센터를 운영했던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새롭게 도약합니다!

중소기업진흥원은 중소기업 성장지원으로 행복공동체 구현을 목표로 기업들의 매출증대가 고용창출을 낳는 선순환 경영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전라남도 출연기관입니다.

주소 |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동3길 2(전남도청 옆)

- 무료법률상담**
 - 무당해고·임금체불 등 비정규직 근로자 노동 상담
 - 중대 사안 관계기관 진정
 - 구제신청 지원 및 의견제출(노무사·자문변호사)
 - 유관기관 연계를 통한 상담 무스 운영
- 취약근로자 권익보호·지원**
 - 근로조건 열악사업장 근로자 상담 및 법률지원
 - 감사단속적 근로자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활동
 - 일용직 근로자 보호를 위한 임금체불 진정 상담 및 지원
- 최저임금·비정규직 차별신고센터 운영**
 -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최저임금 위반사례 접수
 - 비정규직 근로자 상담을 통해 차별적 요소 확인 및 시정 요청, 행정기관 법률구제 신청을 위한 서면작성 지원 및 법률 자문
- 노동법률교육**
 - 근로자 및 사용자 대상 노동법 및 노사관계관련 교육 실시
 - 비정규직에 대한 인식개선 및 적법한 인사관리방안 안내